

한국인 대학생들의 중간어 요청화행에 관한 연구*

김덕영 · 심재황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중앙대학교)

Kim, Duk-Young & Shim, Jaehwang. 2008. A Study on Interlanguage Requests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1), 1-1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pragmatic competence on request for Korean college learners. 175 college students who enrolled in university credit course related in English participated in this study. Ten DCT items on request were provided for the students after they completed the bio data attached on the form. They were asked to read the description and write down the answers in each situation. CCSARP(Cross-Cultural Speech Act Realization Patterns) coding scheme was used for written responses of request sequences. This study analyzed head act in various aspects in three speech units: alerters, head act, and supportive moves. Learners in low group dominated in query preparatory, mood derivable, and explicit performative, while high learners speak query preparatory, mood derivable, and want statement. The frequency of the rate, however, are quite different in head acts. In four perspective, hearer-oriented is much more than other three perspectives. The result supports other previous studies which have analyzed th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주제어(Key Words): interlanguage, head acts, request, DCT, perspectives

1. 서론

우리 자신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사소한 요청(request)을 하며 또한 그 요청에 응답을 하게 된다. 다양한 요청을 유발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화자가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며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 하는 가는 한 공동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 화자가 요청을 해야만 할 상황에서 부적절하며 나아가 불순한 요청 행위를 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청자가 상당히 불쾌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

* 이 논문의 완성을 위해 익명의 3분 심사위원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소중한 논평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키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까지 악화 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화자가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요청 전략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원활하며 부드러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Brown & Levinson (1987)에 따르면 요청화행이 체면위협(face-threatening) 행위로 간주되며 청자가 화자의 요청행위에 의해 부담을 느끼게 되며 그래서 청자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자의 체면을 살려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화자는 요청을 공손전략을 이용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요청 화행을 수행 할 경우는 물론 다른 화행을 수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화자는 상대방과의 친밀도(familiarity)와 지위(status)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변인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하며 공손한 요청 전략을 사용해야만 한다.

특히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여 화행을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화자가 아무리 문법에 어긋나지 않은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였다 하더라도 화용적인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을 사용하였다면 청자가 당황함과 더불어 나아가서 무례함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Hymes (1972)는 일찍이 언어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하며 개발해야 할 능력이 바로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임을 주장했다. 그 의사소통능력이란 단지 학습자의 문법적인 능력을 초월해서 사회문화적으로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인 것이다. 그 이후 Thomas (1983)에 따르면 언어학습자의 화용적 능력의 중요성을 위해 두 가지의 화용적 실패로 구분했는데 그 하나는 화용언어적 실패(pragmalinguistic failure)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화용적 실패(sociopragmatic failure)이다. 두 가지 화용적 실패(pragmatic failure) 중에서 특히 화자가 목표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할 때 생기는 사회화용적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화자가 사회화용적 실패(sociopragmatic failure)를 경험하는데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물론 의사소통 불능 상태에까지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인식하여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대학생들이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사용하여 요청을 하는 경우 다양한 요청을 유발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요청전략을 구사하며 또한 어떠한 관점(perspective)에 의해 학습자들이 발화를 하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요청에 관한 화행을 효과적으로 영어수업 현장과 영어교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배경

중간어 화용론(interlanguage pragmatics)의 연구는 특히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위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연구의 비중을 두고 있다 (Bardovi-Harlig, 1999; Canale, 1983; Canale & Swain, 1980). 체류기간과 학습자의 화용능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Blum-Kulka와 Olshtain (1986)은 목표언어를 구사하는 나라의 체류기간이 언어학습자의 화용론적 습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하고 ESL 학습자가 EFL 학습자보다 훨씬 더 높은 화용능력을 보여줄 것임을 암시해 주었다.

또한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요청(request)과 사과(apology) 그리고 명령에 관한 화행에 대해서 영어와 비교한 Koike (1989)는 특히 전이(transfer)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화행을 수행할 때 모국어에 의존해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문법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법칙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주 화용론적 실책을 가져온다고 했다.

일본인 영어 학습자들과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과의 요청표현에 관한 공손함의 정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한 Kitao (1990)에 의하면 ESL 집단이 영어 원어민과 EFL 학습자의 중간에 놓여 원어민에 더 가까운 화용론적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며 그 이유로서 ESL 학습자가 EFL 학습자에 비해 목표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더 높으며 교사 또는 교재의 오류가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국인들에 관한 요청화행에 대한 연구와는 별도로 한국인들의 요청화행에 관심을 갖은 박용예 (1990)는 영어원어민과 한국어사용자들의 요청과 거절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영어원어민들은 간접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부가사(adjuncts)나 구문적 약화어(syntactic downgraders)를 흔히 사용하며 한국인들은 명령형이나 직접화행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에 관한 요청을 비교 연구한 Ko (1995)에 따르면 영어와 한국어 요청 화행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인 요청 화행이 미국인에 비해 직접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요청 표현을 화용론적 측면에서 보다는 경어 체계에 더 의존하며 미국인들은 요청 표현을 화용론적 수단으로 사용한다. 한국인들은 요청화행을 할 때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연령 그리고 친밀감을 고려하여 요청전략을 선택하며 반면 미국원어민들은 관용적 간접성(conventional indirectness)에 의존하는 경향

을 나타낸다고 했다. 요청화행을 수행하는 관점(perspective)에 있어서도 미국인들(27.9%)은 한국인들(8.2%)에 비해 청자중심적(hearer-oriented) 관점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미국인들이 상대방에게 주는 부담을 피하려는 문화적인 특질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국대학생들이 요청(request)화행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전략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Shinn (1990)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권한(power)을 상당히 강조하는 수직적 위계질서(hierarchy)가 뚜렷한 사회라는 것이다. 그리고 요청(request)할 때 사회화용적(sociopragmatic) 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기준이 수평적이며 개인의 자율성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미국사회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요청화행을 수행할 때 주행위(head act)의 유형 속에 다양한 전략으로 나뉘는데 실제 한국대학생들(상위학습자들과 하위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의 종류와 그 빈도수와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2. 요청화행에 대한 관점에 따른 분석에서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영어 원어민들과 ESL 한국 학습자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 그 차이는 존재하는가?

3.2. 연구대상

이 연구에 참가하는 참여자들은 상위와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들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대학생들로서 서울 근교의 3개 대학의 영어학과에 다니는 학부학생들이며 총 참가 인원은 175명(상위집단 120명, 하위집단 55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TOEIC 문제들에서 뽑아낸 문법 테스트를 사용해서 영어능력을 구분하여 하위집단과 상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하위집단은 상대적으로 상위집단에 비해서 낮은 영어구사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DCT에서 최소한 자기가 의도한 발화를 적을 수 있는 능력

의 학습자들로 선발되었다. 그들의 평균 나이는 20세에서 30세 사이의 연령대에 속하였다.

3.3. 측정 도구 및 절차

자료를 수집하는데 DCT가 이용되었는데 DCT는 참여자들에게 특정한 화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특히 비 원어민들이 면대면 대화에서의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들의 언어학적, 화용적 지식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비록 실제로 일어나는 화행의 상호작용적 특질들(예를 들면 어조, 운율, 감정의 깊이, 반복과 타협)과 같은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연구자들이 주어진 화행에 대한 전형적인 의미적 표현과 패턴들을 살펴볼 수 있다 (Beebe & Cummings, 1996; Blum-Kulka, House & Kasper, 1989; Beebe & Takahashi, 1989).

이 논문의 DCT는 10개의 요청화행이 포함된 상황들에서 2개의 변인들(친밀감, 상대적 지위)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Eisenstein & Bodman, 1986; 임연숙, 2006)에서 사용한 DCT를 참조하여 실제 EFL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DCT 10번 문항(커피자판기에서 잔돈을 빌리기)은 현재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 상황으로서, 최종 DCT 문항 작성 전에 학생들의 문항 선호도 검사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화행 요청을 각 상황별로 정리하여 우리말로 제시하였다 (부록 1 참조).

이 연구 수행을 위하여, 공동연구자들이 각각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학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대학생들에게 수업이외의 일정 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교실에서 영어로 작성하게 하였다. 그들이 심적인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작성시간을 1시간 허용하였으나, 시간을 더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 충분히 작성시간을 주었다.

3.4. 분석

DCT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을 위한 단위를 정해야 하는데 요청에 관한 반응을 부호화(coding) 하기 위해서 Blum-Kulka, House & Kasper (1989)가 CCSARP(Cross-Cultural Speech Act Realization Patterns)에서 고안한 부호화 도식을 이용했으며 요청 화행의 구현을 위해 직접성

(directness)의 정도에 따라 아홉 가지의 주행위(head act)와 보조 장치(supportive move)로 구분하였다. 요청 발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환기소(alerter)로서 대화하기 전에 사람의 이름이나 직함을 불러 청자와 주위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로 주행위(head act)로서 실제로 요청 화행을 만드는 핵심(core)적 기능을 담당하며 9단계로 나누어지며 셋째, 보조 장치(supportive moves)로 청자로 하여금 설득을 하는 기능으로 주 행위의 전, 후에서 수반력을 강화(aggravating)시키거나 완화(mitigating)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래의 표1을 통해서 요청화행이 유형별로 주 행위와 보조 장치의 전략들을 살펴볼 수 있다 (Blum-Kulka, House, & Kasper, 1989). 다음의 표 1은 요청전략과 그 예를 나타낸 분석표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요청 유형도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청자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데, 화자 또는 청자의 입장을 강조하느냐 여부에 따라 청자의 심리적 부담이 변하는 것이다. Blum-Kulka(1991)에 따르면 다음의 네 가지 관점(perspective)으로 요청 유형이 나누어진다.

· 화자 중심(speaker-oriented): 화자의 행동을 강조한 것으로 일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대명사 'I'를 사용함. (예) Can I borrow your book?

· 청자 중심(hearer-oriented): 청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함. (예) Can you lend me your book, please?

표 1. 요청전략 분석표

유형	전략	전형적 예문
주 행위 (Head Act)	Mood Derivable 법에 의한 도출	Leave me alone.
	Explicit Performative 명시적수행문	I am asking you to clean up this room.
	Hedged Performative 한정수행문	I have to ask you...
	Obligation Statement 의무진술	You should clean your room.
	Want Statement 소망진술	I would like to...
	Suggestory Formulae 제안성 요청	Why don't you go to the mountain?
	Query Preparatory 예비적 조건 언급	Can you come to the library?
	Strong Hint 강한 암시	I wasn't at the lecture last week.

	Mild Hint 약한 암시	You seem to be busy.
	Grounder 근거	I just couldn't catch the train, could you..?
	Disarmer 해제	I know you usually don't lending a notebook to other people, but can you make an exception this time?
보조수단 (Supportive Moves)	Imposition Minimizer 부담 완화	I'll return this book soon.
	Preparation 예비	I have something to ask for..
	Pre-commitment속박	Could you do me favor?
	Apology 사과	I'm so sorry..
	Sweeter 칭찬	I heard you are a fast learner in math.
	Promise of Reward 보상 약속	Could you..? I'll buy a meal at a good restaurant.
	Threat 위협	I'll give you F in your final grade.

- 포괄적 (speaker and hearer oriented): 청자, 화자 양쪽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we, us등의 대명사를 사용함. (예) Can we start reading now?
- 비인칭(impersonal):행위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함. (예) It needs to be ruined.

3.5. 결과 및 논의

표2와 3은 요청 화행을 수행할 때 사용된 주행위(head act) 전략들에 관한 빈도수와 그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2는 하위 학습자들의 전략을 보여주는 반면에 표3은 상위 학습자들의 전략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3.5.1. 하위학습자

하위학습자들 55명이 사용한 총 전략의 빈도수는 418개이며 상위학습자들은 120명이 사용한 빈도수가 1057개였다. 하위학습자들과 상위학습자들이 사용한 전략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은 공통적으로 '예비적 조건 언급(query preparatory)'였다(48.3% vs. 71.5%). 예를 들면 상위학습자들은 '대신 식사비용을 내 달라고 요청'하는 문항3의 상황에서 Would you

pay or my lunch instead of me? 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표 2. 전체 수행위 (하위 학습자: 55명)

	수행위	빈도수	백분율
1	법에 의한 도출 (Mood derivable)	137	32.8%
2	명시적 수행문 (Explicit performative)	32	7.6%
3	한정 수행문 (Hedged performative)	0	0%
4	의무 진술 (Obligation statement)	12	2.9%
5	소망 진술 (Want statement)	10	2.4%
6	제안성 요청 (Suggestory formulae)	25	6.0%
7	예비적 조건 언급 (Query preparatory)	202	48.3%
8	강한 암시 (Strong hint)	0	0%
9	약한 암시 (Mild hint)	0	0%
	합계 (Total)	418	100%

반면에 하위학습자들은 Will you buy for us?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예비적 조건 언급(query preparatory) 전략을 사용했다. 학습자들이 사용한 요청 전략들의 특징적인 현상은 상위학습자들이 하위학습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그 전략을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상위학습자들이 청자인 상대방에 대해 의지, 능력을 고려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상대적으로 화용론적 측면에서 더 발달했기 때문에 이 전략을 높은 비율로 사용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3.5.2. 상위학습자

상위와 하위 학습자들 집단 모두에게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사용된 전략은 ‘법에 의한 도출(mood derivable)’ 전략으로 하위학습자들이 32.8%의 비율로 상위학습자들의 15.8%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높은 비율로 사용하였다. ‘법에 의한 도출(mood derivable)’은 문법적인 법(mood)이 요청의 발화수반력을 달성하는 것으로 명령형이나 생략형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문항1에서 ‘막내 동생에게 방의 먼지를 청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하위학습자들은 Clean up this room 또는 Clean this room과 같이 명령형을 사용해서 이 전략을 빈번하게 구사했다.

표 3. 전체 수행위 (상위 학습자: 120명)

	수행위	빈도수	백분율
1	법에 의한 도출 (Mood derivable)	167	15.8%
2	명시적 수행문 (Explicit performative)	18	1.7%
3	한정 수행문 (Hedged performative)	14	1.3%
4	의무 진술 (Obligation statement)	6	0.6%
5	소망 진술 (Want statement)	96	9.1%
6	제안성 요청(Suggestory formulae)	0	0%
7	예비적조건 언급 (Query preparatory)	756	71.5%
8	강한 암시 (Strong hint)	0	0%
9	약한 암시 (Mild hint)	0	0%
	합계	1057	100%

반면에 상위학습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법에 의한 도출(mood derivable)' 전략을 사용했는데 그 전략 대신에 상위 학습자들은 문항1의 요청 상황에서 '예비적 조건 언급(query preparatory)' 전략을 사용하여 청자의 의지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료를 통해 주목을 끄는 사실은 이전 연구 결과들에서 나타나는 강한 암시(strong hint)와 약한 암시(mild hint) 전략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EFL 상황에서 학생들의 반응 전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빈도수에서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수행위는 대체로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위학습자에게 있어서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예비적 조건 언급, 법에 의한 도출, 그리고 명시적 수행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수행위가 전체의 8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성 요청과 의무 진술, 그리고 소망 진술도 적은 비율로 도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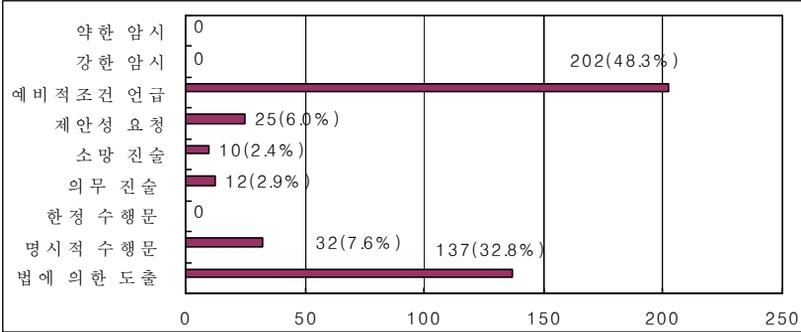


그림 1. 전체 주행위 비교(하위 학습자)

상위 학습자들은 하위학습자와 같이 예비적 조건과 법에 의한 도출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주행위는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학습자와 같이 소망 진술은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명시적 수행문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하위학습자의 명시적 수행문(7.6%)이 상위 학습자의 명시적 수행문(1.7%)보다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 의무 진술도 하위학습자에게서 약간 더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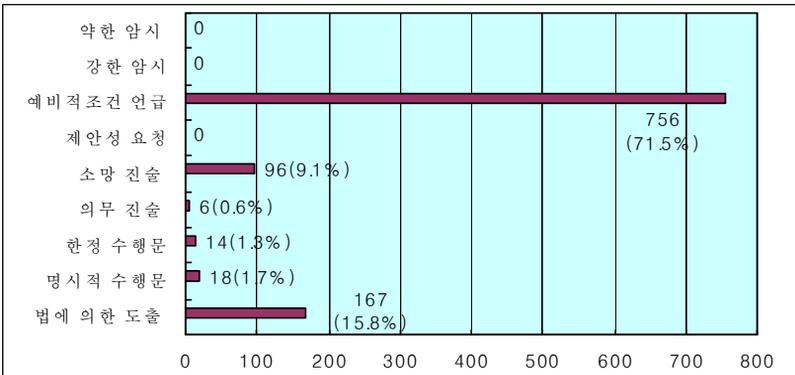


그림 2. 전체 주행위 비교(상위 학습자)

3.5.3. 화자의 관점: DCT

화자의 관점(perspective)은 각 상황에 따라서 화자가 의도를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화자 요청 발화시에 자신이 의도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관점은 화자의 화용적 능력, 그리고 화자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화자가 속한 집단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Blum-Kulka (1991)는 이러한 관점을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화자 중심적 (speaker-oriented), 청자 중심적 (hearer-oriented), 화자-청자 중심적 또는 포괄적 (speaker and hearer-oriented), 비인칭 (impersonal). 이러한 관점은 제시된 문항에 나타난 담화자들 사이의 사회적 지위나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빈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가 자신과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 화자 중심적으로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May I borrow your cell phone?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 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청자 중심적이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Can you lend me your notebook, please? 다른 한편으로 둘 사이의 사회적 친밀도가 가까운 사이는 화자-청자 중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Excuse me, how can we get to the post office? 또한 보다 완곡한 의미로 비인칭이 나타날 수 있다: Where is the post office nearby?

표 4. DCT 문항 관점 빈도

문항	Speaker-oriented (화자중심)	Hearer-oriented (청자중심)	Speaker-hearer-oriented (화자-청자중심)	Impersonal (비인칭)
1	0(0%)	140(80%)	21(12%)	14(8%)
2	53(30%)	114(65%)	0(0%)	9(5%)
3	23(13%)	142(81%)	0(0%)	11(6%)
4	26(15%)	145(83%)	0(0%)	4(2%)
5	35(20%)	130(74%)	0(0%)	11(6%)
6	47(27%)	121(69%)	0(0%)	7(4%)
7	33(19%)	124(71%)	0(0%)	18(10%)
8	0(0%)	166(95%)	5(3%)	4(2%)
9	11(6%)	156(89%)	0(0%)	9(5%)
10	9(5%)	152(87%)	0(0%)	14(8%)
합계(평균)	13.5%	79.4%	1.5%	5.6%

3.5.4. 상황별 화자의 관점 비교

표 5는 화자의 관점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는 연구 자료에 따라서 관점을 분류하고 있다. 먼저 Ko (1995)의 연구는 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원어민은 화자 중심적 인데 반하여, 한국인은 청자 중심적임을 보여주는데 그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87.9% : 6.1%). 국내 교과서에 나타난 관점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김유리 (2006)의 중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관점의 분포에서 청자 중심적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 원인으로서는 고인수 (1998)는 EFL 집단의 한국어 영향에서 찾고 있다. 즉 L2의 자연환경에서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ESL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formal context'에서의 학습에 의존하는 EFL집단은 L2 공동체 내의 해당 상황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규범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있어 L1 공동체의 적합성(appropriateness) 규칙에 의존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연숙 (2006)의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분석에서도 청자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DCT를 활용하여 실제로 관점을 분석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나타난 화행의 관점이 청자 중심적이며 실제 화행 수행에 있어서도 청자 중심적인데, 이것은 화자 중심적인 원어민의 관점과 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관점에 따른 분포 비교 (단위: %)

	영어원어민 화자	한국인화자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DCT
화자 중심	87.9	22.9	25.6	28	13.5
청자 중심	6.1	87.1	66.4	62	79.4
화자-청자 중심	6	0	7.2	10	1.5
비인칭			0.5		5.6

비교적 화자 중심적인 5번의 문항에서도 많은 경우에 청자 중심적으로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지위가 자신보다 상위인 지도교수에게 장학금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Hi, professor. I feel sorry to ask you this, but can I have a chance to get a scholarship?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청자 중심적인 예문이 많이 나

타나고 있다. Professor! Could you recommend me to get a scholarship, please?; I think I need a financial aid for my college tuition.; Could you recommend any scholarship for student?; Could you help me get a scholarship?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도 화자 중심적인 발화를 찾을 수 있다: sir, I want to study hard, but I don't have money. 이와 같은 발화는 주로 하위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어 의도한 효과가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어색한 발화는 7번 문항에서도 볼 수 있다. 친구에게서 빌린 돈의 상황을 연기하는 상황인데, 친구와 사회적 친밀도가 가깝다고 해도 어색한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 sorry, I can't pay back your money soon. I'll pay back next week. 또 다른 전화 빌리기 상황(문항 6)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다: sorry, I need to phone. Lend me, please. 이러한 발화는 요청 전략에서 어울리지 않는 무례함의 표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즉 올바른 요청 전략은 각 상황에 어울리고, 사회적 변인에 합당한 화용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대화가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과나 공손성을 위한 화용적 전략의 수정 (Suh, 1999; Hwang, 1990; Walters, 1980) 이라는 면에서도 일치 하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한국대학생들이 요청(request)화행을 DCT를 통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수행할 전략들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은 학습자들이 요청(request)화행을 수행할 때 주 행위(head act)의 유형 가운데 다양한 요청전략이 사용되는데 실제로 한국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전략의 종류와 그 빈도수와 내용에 관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상위학습자들과 하위학습자들은 Blum-Kulka, House and Kasper (1989)가 분류한 주 행위(head act)유형의 9가지 전략 중에서 각각 6가지 전략만이 나타났고 3가지 전략은 드러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하위학습자들은 ‘한정수행문(hedged performative)’와 ‘강한 암시(strong hint)’와 ‘약한 암시(mild hint)’등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하위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은 ‘예비적조건 언급(query preparatory)’ 전략으로 48.3%가 사용되었으며 ‘범에 의한 도출(mood derivable)’ 전략이 32.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학습자들의 경우도 하위학

습자들의 경우처럼 6개의 전략을 구사했지만 다른 점은 ‘제안성 요청(suggestory formulae)’ 전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하위학습자들처럼 두 개의 ‘암시(hint)’ 전략이 나타나지 않았다. 상위학습자들도 ‘예비적 조건 언급(query preparatory)’ 전략과 ‘법에 의한 도출(mood derivable)’ 전략이 각각 71.5%와 15.8%의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학습자들이 사용한 48.3%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의 ‘예비적조건 언급(query preparatory)’ 전략을 사용했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요청(request)화행에 대한 관점(perspective)에 따른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영어원어민들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관점(perspective)에 따른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이다. 표5에 나타났듯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한국인화자와 중, 고등학교 교과서의 요청에 관한 관점에 따른 분포상황을 보면 청자중심(hearer-oriented)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DCT에 따른 연구의 결과도 학습자들의 79.4%가 청자중심(hearer-oriented)의 요청을 한다고 밝혀졌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인화자와 DCT와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것과 다르게 바로 영어원어민 화자의 87.9%가 화자중심(speaker-oriented)으로 요청을 한다는 것이다. 미국원어민들은 청자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청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되도록 화자중심(speaker-oriented)적인 관점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Ko, 1995; 고인수, 1998; Kim, 1995; Suh, 1999).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각각 25.6%와 28%에 불과한 화자중심(speaker-oriented)의 관점의 비율을 더 높여서 가능하면 영어원어민의 관점(perspective)에 더 근접하게 영어교과서와 다양한 영어교재를 개발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교과서의 집필에 있어서 연구자가 직관에 의존한 자료를 사용하지 말고 실제로 원어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대화문을 많이 포함하는 진정성(authentic)이 있는 자료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인수. (1998). 영어학습자의 요청화행에 나타나는 화용적전이(1). 언어 23(3), 399-430.
- 김유리. (2006). 영어 요청 화행과 반응 분석: 중 3 교과서를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박용예. (1990). *영.한 화행 대조분석-‘요청’과 ‘거절’을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임연숙. (2006).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요청 화행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Bardovi-Harlig, K. (1999). Exploring the interlanguage of interlanguage pragmatics: A research agenda for acquisitional pragmatics. *Language Learning*, 49(4), 677-713.
- Beebe, L., & Cummings, M. (1996). Natural speech act data versus written questionnaire data: How data collection method affects speech act performance. In S. Gass & J. Neu (Eds.), *Speech acts across cultures: Challenge to communication in a second language* (pp. 65-86). Berlin: Mouton de Gruyter.
- Beebe, L., & Takahashi, T. (1989). Do you have a bag? Social status and patterned varia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S. Gass, C. Madden, D. Preston, & L. Selinker(Eds.), *Varia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Discourse and Pragmatics* (pp. 103-125),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Blum-Kulka, S., House, J., & Kasper, G. (1989). *Cross-Cultural Pragmatics*. Norwood, NJ: Ablex.
- Blum-Kulka, S., & Olshtain, E. (1986). Too many words: Length of utterance and pragmatic failur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8, 47-61.
- Brown, P., & Levinson, S.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nale, M. (1983). From communicative competence to communicative language pedagogy. In J. C. Richards & R. Schmidt (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pp. 2-28). London: Longman.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47.
- Eisenstein, M., & Bodman, J. W. (1986). ‘I very appreciate’: expressions of gratitude by native non-native speakers of American English. *Applied Linguistics*, 7, 167-185.
-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 J.

- Holmes (Eds.), *Sociolinguistics*. England: Hazell Watson & Viney Ltd.
- Hwang, J. (1990). Deference versus "Politeness" in Korean speech.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82, 41-55.
- Kim, J. (1995). "Could You Calm Down More?": Requests and Korean ESL Learners. *Working Papers in Educational Linguistics: VII*. 67-82.
- Kitao, K. (1988). Differences between politeness strategies in requests by Americans and Japanese. *Doshisha Studies in English*, 44-45, 326-343.
- Koike, D. (1989). Pragmatic competence and adult L2 acquisition: Speech acts in interlanguag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3(3), 279-289.
- Ko, I. S. (1995). *A cross-cultural study of requests in English and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Shinn, H. (1990). A survey of sociolinguistic studie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82, 7-23.
- Suh, J. (1999). ESL Korean learners' use of external and internal modifications in request realizations. ED 430-400.
- Thomas, J. (1983). Cross-cultural pragmatic failure. *Applied Linguistics*. 4(2), 91-112.
- Walters, J. (1980). The perception of politeness in English and Spanish. In C. Yorio, C Perkins, & J. Schachter, (Eds.), *On TESOL '79: the learner in focus* (pp. 288-296). Washington, D.C.: TESOL.

(부록 1)

화행 요청 전략과 사회적 요인

DCT	화행 상황	사회적 지위	사회적 거리(친밀도)
1	동생에게 방 치우도록하기	화자 > 청자	+
2	친구에게 노트 빌리기	화자 = 청자	+
3	친구에게 식사비 지불 요청	화자 = 청자	+
4	낯선 사람에게 길 묻기	화자 = 청자	-
5	지도교수에게 장학금 요청	화자 < 청자	0

6	낯선 친구에게 전화 빌리기	화자 = 청자	-
7	친구에게 빌린 돈 상환 연기요청	화자 = 청자	+
8	학생에게 조용히 하도록 요청	화자 > 청자	0
9	선생님께 과제물 연기 요청	화자 > 청자	0
10	낯선 친구에게 잔돈 교환 요청	화자 = 청자	-

(부록 2)

DCT: Request

Department () Grade or Age () Gender (Male, Female)

In the following situations, you should use the expression of request.

Please fill out the underlined blank in English.

1. 당신이 오랫동안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자신 방의 물건들에 너무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막내 동생에게 자기의 방 먼지 줍터어 달라고 요청을 한다던?

2. 며칠 남지 않은 공무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같이 다니는 학원에서 강사의 강의를 충실히 필기 하는 친구의 노트를 복사하게 빌려달라고 요청한다던?

3. 당신이 오랜만에 찾아온 이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찾아와 저녁을 사주려고 학교 밖의 식당에 데리고 가서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그때 지갑을 차에 놓고 온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온 학생에게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다던?

4. 당신이 지방에 출장을 가서 그 곳 지방의 대학교를 찾으려고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는 낯선 사람에게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한다던?

5. 당신이 지난 수해로 인해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서 이번 학기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지도교수님을 찾아가서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다던?

6. 당신이 지금 중요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여러 가지 기록을 하기 위해 볼펜을 찾는데 아무리 자신의 가방과 옷에서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평소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 볼펜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

7. 당신이 신용 카드로 쓴 빚을 갚기 위해 친한 친구로부터 30만원을 빌리며 2주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아직 돌려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1주일만 더 갚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때?

8. 당신이 선생님이로서 시험에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영어를 열심히 강의하고 있었는데 맨 뒤쪽에 앉은 두 명의 학생이 계속 소곤소곤 대화를 해서 강의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당신이 뒤에 앉은 학생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할 때?

9. 당신이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관계로 짬을 내어서 학기말 리포트를 준비하고자 했으나 마감일까지 제출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가 마감일을 며칠만 연기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10. 당신이 운동을 한 후에 갈증이 나서 음료를 마시기 위해 음료를 판매하는 자판기 쪽으로 가서 지갑과 주머니를 아무리 뒤졌지만 만 원권 지폐만 있고 동전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때 우연히 그 곳에 서있던 모르는 사람에게 잔돈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할 때?

김덕영

467-75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산151-1번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영어학과

전화: 010-6828-0211

이메일: dukyoung10@hanmail.net

심재황

435-768 경기도 군포시 산본 2동 개나리@ 1331-1803

중앙대학교 영문과

전화: 017-266-5610

이메일: julyshim@hanmail.net

Received: 30 September, 2007

Revised: 28 December, 2007

Re-revised: 10 January, 2008

Accepted: 10 February, 2008